

지역사회 남녀 노인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

김대숙¹ · 홍(손)귀령²

경북대학교 의료복지과¹, 한양대학교 간호학부²

A Study on Knowledge of, Attitudes to Sex and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Sexuality for Elderly Men and Women in Community

Kim, Dae-Sook¹ · Hong, Gwi-Ryung Son²

¹ Department of Medical Welfare, Kyungbuk University, Namyangjoo

²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knowledge about, attitudes to sex, and educational needs of community-dwelling elderly adults, and to compare differences by gender.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202 elderly men and women recruited in 2011.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cheffé test, ANCOVA,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Knowledge was significant by economic status and sexual activity in men, and sexual activity in women. Attitude was significant by age and perception of own health in men, and age and sexual activity in women. Educational needs were significant by sexual activity in men, and age and sexual activity in women.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F=8.74, p=.004$), attitude ($F=18.50, p<.001$), and educational needs ($F=16.40, p<.001$) were found between men and women.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r=.37, p<.001$), and between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r=.24, p=.008$) in men, and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r=.42, p<.001$), between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r=.29, p=.010$), and between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r=.45, p<.001$) in women. **Conclusion:** Gender sensitive sex education and interven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is population to improve attitudes and increase knowledge regarding sex.

Key Words: Knowledge, Attitude, Education, Needs, Sexualit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로 인한 건강관리의 개선 등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의 노인들은 예전보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적, 역연령에서 더 젊게 평가

받고 있으며(Park et al., 2004), 자신들의 노년기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노년기의 연장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의 확산과 질적인 삶에 대한 관심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성생활은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Na, 2006).

노년기 성은 전 생애주기 관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소년기나 성인기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연의 욕구로 이해되어야 하

주요어: 지식, 태도, 교육, 요구, 성

Corresponding author: Hong, Gwi-Ryung Son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0701, Fax: +82-2-2295-2074, E-mail: grson@hanyang.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대숙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from Hanyang University.

Received: Jul 31, 2014 | Revised: Oct 29, 2014 | Accepted: Nov 19, 2014

며 그들의 성생활은 삶의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불구하고(Ra & Kim, 2011), 당사자인 노인들이나 일반인들은 노인의 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노인의 성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다.

캐나다의 60세 이상의 노인 426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횡단적 연구에 따르면 일생동안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건강상태와 성생활에 따른 인간관계의 만족감이며 연령이나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Robinson & Molzahn, 2007). 노인의 성생활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 또한 노년기에도 성 욕구 수준이 평균 이상이고 성생활의 중요도가 75%로 높았으며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Lee, & Kim, 2013).

이렇듯 노인의 성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성과 긍정성,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이(Syme, 2014; Taylor & Gosney, 2011), 노인의 성생활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왜곡되고 부자연스럽게 추구되어왔다. Kweon (2002)의 연구에서 ‘성이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지만 현대 사회의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폐쇄성은 노인의 성 문제를 음성화시켜 성매매로 인한 성 매개 감염 질환에 노출, 성범죄, 독신 노인의 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일부가 성 매개 감염(에이즈 포함)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문제나 치료를 외면하는 등 노인 성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나(Choi & Lee, 2012), 성을 표출하여 성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의논하고 해결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Kang & Park, 2003).

성생활은 성지식(Choi & Lee, 2013), 성태도(Ra & Kim, 2011) 및 성인식(Kim & Lee, 2010)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노화에 따른 성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Wang, Lu, Chen, & Yu, 2008). Kang과 Park (2003)의 연구에서 특히 여성노인들은 결혼을 통해 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은 노화과정의 정상적인 성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기 쉽고 적절한 대처의 시기를 놓치면 기능 장애 등 다양한 문제로 발전하여 고통 받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년기 욕구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Lee & Sung,

2005).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성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내용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건강관리나 보건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노인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ark & Park, 2010).

결국, 노인들에게 있어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성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며,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Jeoung, 2012). 서울시에서는 시내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월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며, 2명 중 1명은 혼전 동거에도 찬성하는 등 성의식이 의외로 개방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노인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노인은 18.3%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상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 하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성지식의 부재와 남성 중심의 성적 태도, 여성들에 대한 성교육의 부재로 성이 자녀 출산의 기능, 그 이상으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또한 남성에게는 성에 관대한 반면, 여성에게는 억압이 존재하는 이중적 가치관이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조건에서(Lee, 2010), 여성노인들의 성은 낮은 목소리로만 이야기되어지며 스스로의 성을 거부하는 태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Lee & Youn, 2006).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기대 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길고 배우자 사망 후 여성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음에도(Lee & Youn, 2006) 노인의 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남녀를 통합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 간호학회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노인의 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녀 노인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의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각각 구분하여 성지식과 성태도, 성교육 요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남녀 노인의 성지식과 성태도, 성교육 요구의 차이를 비교하며 성별에 따라 각각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남녀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남녀 노인의 차이를 비교하여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녀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남녀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의 차이를 비교한다.
- 남성노인, 여성노인 각각의 성지식과 성태도, 성교육 요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65세 이상 재가 남녀 노인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고,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각각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K시 I구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책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재가노인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고 자기기입식 응답이 가능한 노인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노인

자기기입식 응답이 가능한 노인을 선정기준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설문내용이 성에 관한 예민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반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20으로 설정하여 t-test 이용 시 요구되는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56명이 계산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가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아직 어색하고 거부감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에게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소극적인 참여를 고려하여 설문지 배부 시 일반적인 탈락률 20%보

다 10% 더 참작하여 총 240부를 배부하였으며, 연구에 불충분하게 작성된 38부를 제외한 20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9월에 실시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의뢰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 보장과 자발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하기를 동의한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 하도록 하였으며,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어주어 설명하였다. 연구보조자는 현직 간호사 2명과 대학생 1명으로 구성되었고, 연구자로부터 설문지 조사요령 등을 총 2회에 걸쳐 훈련받은 뒤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지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White (1982)가 개발한 Aging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cale (ASKAS)를 Quinn-Krach와 Van Hoozer (1988)가 수정하고 Han, Kim과 Chi (2003)가 번역 및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한글판 도구 사용을 위해 허락을 받았다. ASKAS는 총 29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은 '예', '아니오', '모른다'로 구분되어 있고 정답에는 1점, 오답과 '모른다'에는 0점을 주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2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성지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White (1982)에 의해 개발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Han 등(200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 성태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White (1982)가 개발한 ASKAS를 Quinn-Krach와 Van Hoozer (1988)가 수정하고 Park과 Park (2010)이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성태도 측정 문항은 총 11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그렇지 않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처리하고 1, 8, 10, 11문항은 역으로 환산 처리하였다. 최저 11점에서 최고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것을 의미한다. White (1982)

에 의해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Park과 Park (201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3) 성교육 요구

대상자의 성에 대한 교육 요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연구자가 노인 성교육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Han et al., 2003; Lee & Sung, 2005; Park & Park, 2010)를 통해 나타난 성교육의 내용을 토대로 예비문항을 추출하여 노인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보완하여 노인전공 간호학 박사 1인, 간호학 박사 1인, 노인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가로 1문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그밖에 더 알고 싶은 교육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써 점수는 '전혀 알고 싶지 않다'에 1점, '알고 싶지 않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알고 싶다'에 4점, '꼭 알고 싶다'에 5점을 배정했으며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교육 요구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총 10문항에 대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Statistic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남녀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 남성노인,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는 t-test, ANOVA, 사후 분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다.
- 남녀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의 차이는 남녀 노인에서 유의한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ANCOVA를 실시하였다.
- 남녀 노인의 성지식과 성태도와 성교육 요구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대상자 202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성별비율은 남자 123명(60.9%), 여자 79명(39.1%)으로 남녀의 비율은 약 3:2 정도였다. 연령은 최소 65세에서 최대 93세로 남녀 평균 연령은 75.1 ± 5.4 세이며 남녀 두 군 모두 75~79세 군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chi^2=12.35$, $p=.006$), 교육정도($\chi^2=17.21$, $p<.001$), 배우자 유무($\chi^2=26.89$, $p<.001$), 거주가족형태($\chi^2=11.07$, $p=.004$), 성생활 여부($\chi^2=14.06$, $p<.001$), 성교육($\chi^2=4.20$, $p=.040$)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2.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노인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는 Table 2와 같다. 남성노인의 경우 성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경제 상태($t=-2.82$, $p=.006$), 성생활 여부($t=2.09$, $p=.039$)이다. 성지식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9점으로 남성노인의 총 문항의 평균점수는 16.76 ± 4.66 점이다. 성지식 문항은 1점 만점이며 문항별 평균 평점은 0.58 ± 0.16 으로 정답률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의 횟수가 줄어든다(0.89 ± 0.31)', '남성노인이 받기했을 때 단단함은 젊은이보다 약한 편이다(0.83 ± 0.38)', '남성노인에게 성적무능력에 대한 두려움은 성생활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0.77 ± 0.42)'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었으며($F=6.42$, $p<.001$),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한 결과, 연령은 69세 이하인 군(42.61 ± 3.88)이 75~79세인 군(37.41 ± 5.54)과 80세 이상인 군(35.54 ± 5.89)보다 성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인건강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70$, $p=.011$), 본인 건강이 좋은 군(39.33 ± 5.13)이 좋지 않은 군(35.28 ± 4.82)보다 성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태도의 점수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허용적으로 남성노인의 총 문항의 평균점수는 37.73 ± 5.47 점이었으며, 성태도의 개별 문항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3 ± 0.50 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노인도 대중매체나 신문, 잡지 등에서 야한 장면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한다(3.80 ± 0.74)', '노인이 즐거움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비도덕적이다(3.76 ± 0.96)', '노인이 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3.72 ± 0.96)' 등의 순이다.

성교육 요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성생활 여부로 현재 성생활을 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 (n=123)	Women (n=79)	Total (N=202)	χ^2	p
		n (%)	n (%)	n (%)		
Age (year)	≤ 69	13 (10.6)	22 (27.8)	35 (17.3)	12.35	.006
	70~74	29 (23.6)	21 (26.6)	50 (24.8)		
	75~79	46 (37.4)	23 (29.1)	69 (34.2)		
	≥ 80	35 (28.5)	13 (16.5)	48 (23.8)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24 (19.5)	17 (21.5)	41 (20.3)	17.21	< .001
	High school	42 (34.1)	47 (59.5)	89 (44.1)		
	> High school	57 (46.3)	15 (19.0)	72 (35.6)		
Sexual partner	Yes	105 (85.4)	41 (51.9)	146 (72.3)	26.89	< .001
	No	18 (14.6)	38 (48.1)	56 (27.7)		
Health status	Poor	18 (14.6)	14 (17.7)	32 (15.8)	0.35	.839
	Neutral	54 (43.9)	33 (41.8)	87 (43.1)		
	Good	51 (41.5)	32 (40.5)	83 (41.1)		
Living	Alone	12 (9.8)	21 (26.6)	33 (16.3)	11.07	.004
	With spouse/partner	78 (63.4)	36 (45.6)	114 (56.4)		
	With others	33 (26.8)	22 (27.8)	55 (27.2)		
Perceived economic status	Above middle	94 (76.4)	68 (86.1)	162 (80.2)	2.82	.093
	Low	29 (23.6)	11 (13.9)	40 (19.8)		
Current sexual activity	Yes	55 (44.7)	15 (19.0)	70 (34.7)	14.06	< .001
	No	68 (55.3)	64 (81.0)	132 (65.3)		
Has had sex education	Yes	24 (19.5)	7 (8.9)	31 (15.3)	4.20	.040
	No	99 (80.5)	72 (91.1)	171 (84.7)		

다 성교육 요구가 높았다($t=2.52, p=.013$). 성교육 요구 정도는 11문항이나 개방형 질문 1문항을 제외하고 10문항의 점수 배점은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남성노인의 총 문항 평균 점수는 36.18 ± 6.84 점이며, 문항별 최고 점수는 5점으로 문항별 평균평점은 3.62 ± 0.68 점이다. 남성노인에서 점수가 높았던 성교육 요구 문항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안전한 성행위 기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다(3.83 ± 0.87)’,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고 싶다(3.78 ± 0.84)’,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질환은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다(3.76 ± 0.84)’ 등의 순이었으며 전체 문항에서 비교적 고른 점수($3.83 \pm 0.87 \sim 3.37 \pm 1.04$)를 보이며 성교육의 요구를 나타내었다.

3.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노인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는 Table 3과 같다. 성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여성노인

의 일반적 특성은 성생활여부($t=2.17, p=.033$)로 성생활을 하는 군(16.06 ± 4.20)의 성지식 수준이 높았다. 여성노인의 성지식 총 문항의 평균 점수는 13.14 ± 5.93 점이며 각 문항별 평균 평점은 1점 만점에 0.45 ± 0.20 점으로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6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자보다 질 분비물이 감소한다(0.73 ± 0.45)’, ‘노인에게 있어서 성적인 무관심은 우울한 심리상태가 원인일 수 있다(0.70 ± 0.47)’, ‘지나친 흡연은 성욕을 감소시킨다(0.67 ± 0.47)’의 순으로 확인되어 남성노인에서 점수가 높았던 성지식 문항과 다름을 보여주었다.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F=5.49, p=.002$)과 성생활여부($t=5.35, p<.001$)이며, 연령의 경우 남성노인과 마찬가지로 여성노인 또한 69세 이하인 군(38.05 ± 6.45)이 75~79세인 군(31.61 ± 4.55)과 80세 이상인 군(32.85 ± 4.74)보다 성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총 문항 평균 점수는 34.00 ± 6.12 점이며, 각 문항별 평균 평점은 3.09 ± 0.56 점으로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노인이 즐거움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비도덕적이다(3.56 ± 1.01)’, ‘노인이 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3.53 ± 1.05)’, ‘노인은 성적 흥미가 거의 없다(3.35 ± 0.98)’의 순으로 남성노인과 비슷한 문항에서 허용적인 성

Table 2. Knowledge of, Attitudes to Sex, and Educational Needs by General Characteristics in Elderly Men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educational needs	
		n (%)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 69	13 (10.6)	19.00±4.95	1.35	42.61±3.88 ^a	6.42	37.15±5.86	0.25
	70~74	29 (23.6)	16.79±4.19	(.262)	38.69±3.79 ^b	(<.001)	36.79±5.65	(.864)
	75~79	46 (37.4)	16.71±4.83		37.41±5.54 ^c	a > c, d	35.74±7.42	
	≥ 80	35 (28.5)	15.97±4.64		35.54±5.89 ^d		35.89±7.45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24 (19.5)	15.17±4.97	2.04	36.29±6.66	1.25	38.63±6.76	2.01
	High school	42 (34.1)	16.76±4.53	(.135)	37.67±5.20	(.291)	35.88±6.10	(.139)
	> High school	57 (46.3)	17.44±4.54		38.39±5.08		35.37±7.25	
Sexual partner	Yes	105 (85.4)	16.82±4.49	0.31	37.85±5.33	0.57	35.93±6.54	-0.96
	No	18 (14.6)	16.44±5.70	(.754)	37.06±6.36	(.573)	37.61±8.43	(.338)
Health status	Poor	18 (14.6)	17.00±5.54	2.98	35.28±4.82 ^a	4.70	37.00±8.12	0.37
	Neutral	54 (43.9)	15.67±4.92	(.055)	37.03±5.62 ^b	(.011)	35.61±7.23	(.695)
	Good	51 (41.5)	17.84±3.84		39.33±5.13 ^c	c > a	36.49±5.96	
Living	Alone	12 (9.8)	15.08±6.69	1.03	35.42±5.38	1.22	36.58±8.40	0.78
	With spouse/partner	78 (63.4)	16.78±4.61	(.361)	38.06±5.15	(.298)	35.61±6.50	(.462)
	With others	33 (26.8)	17.33±3.86		37.79±6.18		37.36±7.09	
Perceived economic status	Above middle	94 (76.4)	17.40±4.02	-2.82	38.04±5.45	-1.14	35.96±6.80	0.65
	Low	29 (23.6)	14.69±5.93	(.006)	36.72±5.51	(.258)	36.90±7.01	(.520)
Current sexual activity	Yes	55 (44.7)	17.73±4.34	2.09	38.71±4.67	1.80	37.87±5.16	2.52
	No	68 (55.3)	15.99±4.80	(.039)	36.94±5.96	(.075)	34.81±7.70	(.013)
Has had sex education	Yes	24 (19.5)	18.08±4.97	1.55	38.29±6.31	0.56	36.79±6.62	0.49
	No	99 (80.5)	16.44±4.55	(.123)	37.59±5.27	(.578)	36.03±6.92	(.627)
Total		123 (100)	16.76±4.66		37.73±5.47		36.18±6.84	

a,b,c,d: Scheffé test.

태도를 보여주었다.

성교육 요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F=6.18, $p < .001$)과 성생활여부($t=4.06, p < .001$)이며 연령인 경우, 69세 이하인 군(35.09±7.84)이 70~74세인 군(27.80±7.34)과 75~79세인 군(25.70±9.08)보다 성교육 요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총 문항 평균점수는 30.00±8.74점이며 문항별 평균평점은 3.00±0.87점으로 여성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고 싶다(3.53±0.99)’,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질환은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다(3.28±1.11)’, ‘성병과 에이즈에 대해 알고 싶다(3.20±1.08)’ 등의 순으로 성교육 요구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노인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의 차이

남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가족형태, 성생활여부, 성교육 변수들을 더미(dum-

my)처리 하여 공변량으로 설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의 차이가 있는지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Table 4).

성별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F=8.74, $p = .004$), 남성이 여성보다 성지식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남녀 노인 각각의 성태도 또한 차이가 나는 변수들을 공변량으로 보정한 뒤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18.50, $p < .001$),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성교육 요구의 경우도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6.40, $p < .001$).

5. 남녀 노인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의 상관관계

남성, 여성노인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남성노인의 경우 성지식과 성태도는 양

Table 3. Knowledge of, Attitudes to Sex, and Educational Needs by General Characteristics in Elderly Women (N=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Wom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educational needs	
		n (%)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 69	22 (27.8)	14.15±5.76	1.01	38.05±6.45 ^a	5.49	35.09±7.84 ^a	6.18
	70~74	21 (26.6)	11.24±5.30	(.392)	33.10±6.30 ^b	(.002)	27.80±7.34 ^b	(.001)
	75~79	23 (29.1)	13.52±6.10		31.61±4.55 ^c	a > c, d	25.70±9.08 ^c	a > b, c
	≥ 80	13 (16.5)	14.00±6.83		32.85±4.74 ^d		32.54±7.01 ^d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17 (21.5)	12.35±5.81	0.93	31.88±5.74	2.27	28.12±9.48	0.68
	High school	47 (59.5)	13.87±5.83	(.400)	35.17±5.88	(.110)	30.89±8.71	(.511)
	> High school	15 (19.0)	11.73±5.20		32.73±6.76		29.33±8.14	
Sexual partner	Yes	41 (51.9)	14.05±5.39	1.42	34.24±6.18	0.37	31.20±8.28	1.27
	No	38 (48.1)	12.15±6.39	(.158)	33.73±6.13	(.715)	28.71±9.15	(.209)
Health status	Poor	14 (17.7)	11.64±5.33	2.08	32.93±5.61	0.48	29.93±10.21	0.72
	Neutral	33 (41.8)	12.21±6.38	(.132)	33.73±6.23	(.620)	31.30±7.36	(.489)
	Good	32 (40.5)	14.75±5.49		34.75±6.30		28.69±9.43	
Living	Alone	21 (26.6)	11.29±6.10	1.89	34.05±6.69	0.01	31.62±9.15	0.70
	With spouse/partner	36 (45.6)	14.39±5.64	(.158)	34.08±6.36	(.987)	30.00±7.88	(.500)
	With others	22 (27.8)	12.86±6.02		33.82±5.39		28.45±9.76	
Perceived economic status	Above middle	68 (86.1)	12.94±5.90	0.74	33.96±5.87	0.16	31.73±9.62	0.70
	Low	11 (13.9)	14.36±6.23	(.464)	34.27±7.82	(.875)	29.72±8.63	(.483)
Current sexual activity	Yes	15 (19.0)	16.06±4.20	2.17	40.53±5.05	5.35	37.53±7.37	4.06
	No	64 (81.0)	12.45±6.10	(.033)	32.47±5.30	(< .001)	28.23±8.11	(< .001)
Has had sex education	Yes	7 (8.9)	16.57±4.47	1.62	36.00±5.80	0.91	30.57±7.85	0.18
	No	72 (91.1)	12.80±5.98	(.109)	33.81±6.15	(.368)	29.94±8.87	(.858)
Total		79 (100.0)	13.14±5.93		34.00±6.12		30.00±8.74	

Table 4. Differences in Knowledge of, Attitudes to Sex, and Educational Needs by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lderly Men and Women (N=202)

Variables	Gender	n	M±SD	F	p
Knowledge about sex	Men	123	16.76±4.66	8.74	.004
	Women	79	13.14±5.93		
Attitude to sex	Men	123	37.73±5.47	18.50	< .001
	Women	79	34.04±6.12		
Sex educational needs	Men	123	36.18±6.84	16.40	< .001
	Women	79	30.00±8.74		

Covariates: Age, educational level, sexual partner, current sexual activity, has had sex education.

Table 5.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of, Attitudes to Sex, and Educational Needs in Elderly Men and Women (N=202)

Variables	Men (n=123)		Women (n=79)	
	Attitude	Educational needs	Attitude	Educational needs
	r (p)	r (p)	r (p)	r (p)
Knowledge	.37 (< .001)	.24 (.008)	.42 (< .001)	.29 (.010)
Attitude		.14 (.112)		.45 (< .001)

의 상관관계($r=.37, p<.001$),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r=.24, p=.008$)를 보였으나 성태도와 성교육 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성지식과 성태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r=.42, p<.001$),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r=.29, p=.010$)를 나타냈으며 성태도와 성교육 요구도 또한 양의 상관관계($r=.45, p<.001$)를 보였다.

논 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노년기의 문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인의 성 문제이다.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자라면서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교육을 받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세월이 흘러 노인들은 성에 관대해진 사회를 살면서 여러 변화와 수용을 경험해야만 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성에 관한 이슈로서의 성교육이다.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이는 성지식과 성태도는 현대의 손자녀 세대와 함께 살아가며 의사소통하기에는 다소 낮은 점수이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점수의 차이 또한 성 대상자 간의 관계 형성에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기도 K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202명의 성지식 수준은 남성노인 16.76 ± 4.66 점, 여성노인 13.14 ± 5.93 점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Han 등(2003)의 연구와 Yoo (2009)의 연구에서 보여준 점수 보다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이었고, No와 Lim (2011)의 연구보다는 다소 낮은 점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의 거주지, 연령군의 차이, 학력, 성생활 여부 등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수도권외의 신도시 내 재가 거주 노인들로서 타 지역보다 교육 정도(남성의 고졸 이상 비율 80.4%, 여성 78.5%)나 경제 상태(남성의 중 이상 비율 76.4%, 여성 86.1%) 등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노인 집단 표본의 또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im, Song과 Park (2005), Yoo (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여성노인들의 성지식이 남성노인보다 낮게 나온 것은 여성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올바른 성의 의미와 성의 긍정적, 기능 및 노화에 따른 신체적·심리적·정신적·사회적 변화를 포함하는 성교육을 통한 성지식 증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지식의 문항에서 남녀 노인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각기 달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으나,

‘폐경기 여성에게 성적 만족감의 감소는 당연하다’, ‘지나친 자위행위는 조기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 노인은 성적으로 둔감하다’, ‘남성노인은 사정욕구가 감소되므로 젊은이보다 발기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 등의 문항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낮은 지식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추후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성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 남성노인은 경제 상태와 성생활 여부이었으며, 여성노인은 성생활 여부로 성생활을 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보다 성지식 수준이 높았다. Garrett (2014)의 연구에서는 사람은 노화하면서 생리적인 성적반응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남녀 구별 없이 성적욕구와 성행위는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성생활 여부는 성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녀 노인에서 기능적, 환경적, 또는 기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성생활의 장애를 겪는 경우 성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애 인자를 고려한 성교육과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녀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 점수는 남성노인 37.73 ± 5.47 점, 여성노인 34.00 ± 6.12 점이며 남성노인의 성태도가 여성노인보다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성태도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권에서 성을 멀리 하는 것이 지켜야 할 도리이며 생식수단의 성기능이 부각된 수동적인 성 태도로 살아온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성에 관하여 소극적이며 억압적인 경향과 보수적인 성 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여성노인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태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일반적 특성은 남성노인에서는 연령과 본인 건강, 여성노인은 연령과 성생활여부로 두 군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좀 더 허용적인 성태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남녀 노인 모두에게서 성태도에 너그러운 경향을 보이는 중요한 관련 인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노인의 경우 성 파트너가 있어 성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성태도가 긍정적, 허용적이며 성 파트너, 성행동, 성문제, 그리고 성태도의 정도는 연령에 의해 모두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 Waite, Laumann, Das와 Schumm (2009)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의 결과인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는 젊은 연령군에서 성태도가 허용적인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녀 노인의 성교육 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 중 공통되는 것은 성생활 여부로서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성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추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대상자 선정과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에게 성교육 요구가 높았던 문항 중에는 남성들에게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 '성병과 에이즈에 대해 알고 싶다(3.20±1.08)' 등이 있으며 Han 등(2003)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결과와 유사하여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교육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 보편적인 기본 틀을 구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별 및 서로 다른 성교육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나이와 성생활의 여부는 성지식과 성태도, 성교육 요구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나 앞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성교육 요구의 개방형 질문인 '그밖에 더 알고 싶은 내용'에는 전체 연구참여자의 25명(12.4%)이 다양한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노인의 남녀의 성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성교 시 클라이막스가 안 되는데 되게끔 알려 달라', '시중에 판매되는 발기약이 노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사용해도 해가 없는지?', '성 욕구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싶다', '적당량의 성행위는 건강 및 수명에 이롭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알고 싶다', '노인 부부의 성생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심리적, 약물복용, 환경 등)은 무엇인가', '성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비아그라의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다', '발기 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등으로 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과감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질문 내용에 관한 결과는 Lee와 Sung (2005)의 연구에서 보여준 노인 성교육의 내용인 성윤리, 성기능 장애, 성 관련 신체적·심리적 발달, 성행위를 위한 기술과 지식, 성병 및 치료, 비아그라, 성인용품 등의 결과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들의 다양한 관심과 역동적이며 현실적인 요구를 잘 파악하여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한다면 노인의 성지식 증가와 긍정적인 성태도로의 변화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녀 노인의 성지식과 성태도와 성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는 남성노인의 경우 성지식과 성태도,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허용적이며 성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태도와 성교육 요구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노인은 성

지식과 성태도,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성태도와 성교육 요구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허용적이며 성교육 요구도 높았으며,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교육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보여 준 성지식과 성태도와의 상관관계와 유사한 결과이다(Han et al., 2003; Kim et al., 2005; No & Lim, 2011). 즉, 남성노인의 경우 성태도와 성교육요구 간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노인은 성지식과 성태도와 성교육요구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여성노인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는 남성노인들이 미디어 시대의 영향으로 다각적인 성적 정보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용함으로써 성교육의 필요성을 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남성본위의 성문화에 익숙해 있던 여성노인들은 성의 평등을 관대하게 수용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면서 성에 대한 이해와 억압되어 있던 성교육 요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여성노인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노인의 성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도 노인은 성적인 존재임을,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 없음을 알려주고 있지만(Laganà & Maciel, 2010), 아직도 전통적인 사회적 통념상의 노인의 성은 편견과 부정적 평가, 사회·문화적 억압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는 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성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연령층의 노인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과 긍정적 성태도로의 전환으로 노인의 성을 바라보는 대중과 노인 자신들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남녀 노인을 구분하여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였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앞으로 보다 심층적이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함을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남녀 노인의 성 차이에 관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성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각각의 신체적, 기능적 측면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문제를 함께 융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다학

제간 협력 체제하에 전 생애주기적 발달과업으로서의 성을 이해하는 거시적 성교육 프로그램과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여건 등을 구분한 맞춤형 성교육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 세대에 비하여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으며 다양한 요구를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교육의 대상으로 노인은 물론 손·자녀세대인 청·장년층과 노인과 관련된 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족 구성원이나 노인 전문가로서 노인을 이해하는 사회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대책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일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지정된 시설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전체 노인을 대표하기에는 표본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으나, 남성과 여성노인의 동질성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 해석 시 치우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의 도구를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항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지 않고 성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도 존재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및 노인의 성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노인들의 취약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특히 성지식과 성태도가 낮은 여성노인의 성교육과 성생활을 주도하는 남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별을 구분한 심층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병원, 노인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노인 성교육 전문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언한다.

셋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번역된 도구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따라 원문의 의미가 달리 표현된 문항이 있을 수 있어 대상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oi, H. S., & Lee, S. J. (2012). Sexual characteristic of elderly and sexual transmitted diseas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1, 47-58.
- Choi, J.-I., & Lee, M. (2013). The influence of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Mediating effect of sexu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1, 19-39.
- Garrett, D. (2014). Psychosocial barriers to sexual intimacy for older people. *British Journal of Nursing*, 23(6), 327-331.
- Han, H.-J., Kim, N.-C., & Chi, S.-A. (2003). Knowledge,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for sexuality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5(1), 45-55.
- Jeoung, S. Y. (2012). *A study of sex recognition and sex education demand of old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Kang G.-H., & Park, B. (2003). The case study for the attitude on sexuality and sexual activity of Korean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2, 105-126.
- Kim, C., & Lee, H. S. (2010). The relation between sex perception, sex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3), 282-292.
- Kim, G. Y., Song, H.-Y., & Park, S. M. (2005).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s, importance of sexuality in the age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1(4), 324-332.
- Kweon, M. S.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aganà, L., & Maciel, M. (2010). Sexual desire among Mexican-American older women: A qualitative study. *Culture, Health & Sexuality*, 12(6), 705-719.
- Lee, D. (2010). A feminist study on the sexual discourse of the elderly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6(2), 41-69.
- Lee, K.-H., & Youn, G. (2006). Sexuality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singl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5, 105-131.
- Lee, S. J., Lee, Y. S., & Kim, Y. E. (2013). The degree of elderly sexual desire and their attitudes towards sex.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0(1), 1-21.
- Lee, Y.-K., & Sung, K.-W. (2005). An empirical analysis on sex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senior citiz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8, 295-316.
- Na, I. S. (200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3), 547-563.
- No, J. H., & Lim, E. J. (2011).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community-dwelling rural eld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3(2), 109-119.
- Park, M. H., Koh, J. K., Kim, E. S., Park, J. S., Yang, H. J., Yun, E. J., et al. (2004). *Gerontological nursing*. Seoul: Jungdammedia Press.
- Park, M. H., & Park, M. (2010). Effects of sex education on elders' knowledge and attitude regarding sexuality. *Journal of Ko-*

- rean *Gerontological Nursing*, 12(1), 62-71.
- Quinn-Krach, P., & Van Hoozer, H. (1988). Sexuality of the aged and the attitudes and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7(8), 359-363.
- Ra, D.-S., & Kim, Y.-D. (2011).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85-203.
- Robinson, J. G., & Molzahn, A. E. (2007). Sexualit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3(3), 19-27.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December 29). *Announce of research results: Sexuality of elders in Seoul*. Retrieved July 22, 2014, from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4276&act=VIEW&boardId=4276
- Syme, M. L. (2014). The evolving concept of older adult sexual behavior and its benefits. *Gener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38(1), 35-41.
- Taylor, A., & Gosney, M. A. (2011). Sexuality in older age: Essential considerations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Age & Ageing*, 40(5), 538-543.
- Waite, L. J., Laumann, E. O., Das, A., & Schumm, L. P. (2009). Sexuality: Measures of partnerships, practices, attitudes and problems in the 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Suppl 1), i56-i66.
- Wang, T. F., Lu, C. H., Chen, I. J., & Yu, S. (2008).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activity of older people in Taipei, Taiwa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4), 443-450.
- White, C. B. (1982).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attitudes and knowledge regarding sexuality in the age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1(6), 491-502.
- Yoo, S. Y.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older adults. *Nursing Science*, 21(2), 63-74.